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출원

진안군, 내년 5월까지 특허등록·시범운영 등 거쳐 2022년 모든 마을에 설치

진안군은 진안판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지난 4일 특허출원했다(특허출원 10-2020-0168359).

군은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4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출원 및 등록은 용역업체인 인조이웍스가 추진하고, 특허등록 시 용역계약 등에 따라 진안군과 공동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특허등록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특허출원 이후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들을 보완하는 절차를 밟는다. 군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까지 특허등록을 마치고, 시범 운영 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보완한 후 2022

년에는 진안군 관내 모든 마을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군(민원봉사과)이 기획하고, (주)인조이웍스가 기술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진안 관내 316개 마을과 행정기관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기기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각종 생활정보·복지서비스·관광정보 등을 제공하고,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화상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상담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접수가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에는 행정민원서비스에 최적화된 최신 AI챗봇과 실시간 화상상담 기능, 민원신청서 전자접수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전용기기는 올 11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휠체어사용자와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개정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

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2021. 7.1. 시행예정)을 반영하여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보다 화면을 확대하고, 기기 자체의 높이를 낮췄다.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는 총 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진안군은 이중 70%(67억원)를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진안군이 개발한 시스템이 특허를 받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이 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민생활 지원 및 민원업무 처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행정을 통해 진안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세요”

장수군, 구매대행서비스·전화주문 문화상품 제공

장수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위해 구매대행 지원 및 전화주문 문화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장수군은 지난 2월부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08명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1인당 9만원)를 발급해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하며 도서, 숙박, 교육서비스, 철도 문화강좌, 체육시설까지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제한이 뒤따랐으며 이를 위해 장수군은 구매대행 서비스와 전화주문 문화상품을 적극 안내하며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구매대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자 등을 위해 우리 지역의 문

화상품(공예품 등) 등 필요한 물품을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대신 구매해 전달하는 서비스다.

'전화주문 문화상품'은 전화상담원을 통한 문화상품 주문을 안내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문화누리 카드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되며 올해 31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가위박물관 '도란도란 가위세상' 조성

진안군은 진안가위박물관에 8일부터 전시·체험·휴식의 요소를 담은 도란도란 가위세상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도란도란 가위세상은 가위체험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조성했다.

현재 도란도란 가위세상에서는 27일 까지 (사)진안미술협회 회원들의 '향토작가초대전'을 전시하고 있으며, 상설체험인 황새가위 석고방향제 만들기, 황새가위 배지 및 거울만들기, 가위꽃이만들기는 코로나 상황 개선 시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란도란 가위세상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



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문화체험 및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전화기반 출입명부 도입

코로나19 대응 위해 KT와 손잡고 방문자 기록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KT와 손잡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출입명부 정보통신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기반 출입명부는 전통시장,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전자 QR코드 사용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유희·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가 대상 장소에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을 하면 30일동안 전화번호가 저장·관리되는 방식이다.



무주군 전화출입 명부 시스템 포스터.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박승호 팀장은 "많은 시설이나 기관들이 수기 출입명부나 전자QR코드로 방문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기 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QR코드는 사용법 숙지에 대한 제약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었다"며 "전화 명부는 서면과 QR명부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군은 11일까지 전화 출입명부 도입 장소를 확정, 장소마다 KT로부터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부여받은 뒤 16일부터 서비스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어디 방문했을 때 명부를

작성하라고 하면 너나 나나 다 잡고 쓰는 불편감도 개량적이고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도 안 내렸는데 전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니 좋다"며 "전화 명부를 쓰게 되면 사용자나 관리자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군 홈페이지와 안내문, 이장회의, 읍면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진안군은 전북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0명을 유지하고 있어 전국 상황에 비해서는 청정지역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서 1.5단계를 검토하였으나, 강력한 방역을 위해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부서와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진안군을 안전하게 지킬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희·단란주점 유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고 수용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이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이내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모임·식사·숙박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모든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모든 실내로 확대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춘성 군수는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무르고,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을 취소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주택용 소방시설 전 가구에 100% 보급

무주군이 화재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건조하고 추운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택 화재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무주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무주군 화재예방지원조례'에 따라 2019년에 시행된 스프레이 및 투척용 소화기 보급에 이어 가정집에 필수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00% 보급을 목적으로 지원에 들어갔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연 초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도 집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설치 및 보급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건설사업 조기 발주 추진단 본격 가동

진안군은 8일 2021년도 주민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을 조기 발주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 648건 113억4,200만원에 달하는 농로, 배수로, 세천 등의 측량 및 설계에 착수에 나섰다 밝혔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읍면사무소 직원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2021년 2월말까지 전체 설계를 완료하고, 영농기 및 우기 이전 사업을 완공해 주민들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제2의 재해피해 예방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추진단은 합동 사무를 통하여 시설직 공무원의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법과 적정 단가를 산정하여 설계에 일괄 반영하는 등 자체 설계로 5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